

# 아직도 混食하는 模範 列車食堂

<活 眼>

暫時 業務를 잊고, 집을 떠나 旅行 길에 오르니  
홀가분한 氣分이 興겹기까지 하다. 두툼한  
겉옷마저 輕快하게 느껴진다.

旅行을 하는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도 많다.  
생각나는대로 몇줄 적어간다.

1月 14日 土曜日 午後 1時다. KIST H博士  
西江大學 I博士 그리고 筆者는 새마을號 汽車  
에 同乘 南으로 南으로 달리고 있다.

氣象條件은 溫和, 快晴하다. 車窓에 스치는  
首都圈의 景觀, 어느덧 中小都市 또다시 農村風  
景으로 바뀐다. 마치 歲月에 흐름같이 느껴진다.  
울긋불긋한 農家 푸른 山 잘 다듬어진 田畠  
마을 이것이 나의 祖國이로구나, 감탄……

H博士, I博士, 두달前이라면 해로는 2年이  
지만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이야기가 始作된다.

一行은 點心을 위해 맛도 있고 값도 싼 列車  
食堂으로 자리를 옮겼다. 밥이 나왔다. 意外的  
보리 混食이다. 일편 반갑고도 의아스러웠다.  
一應 食堂사람보고 여기는 아직 混食時代로군!  
外國人 旅客도 몇분 있는데? 아직 上部에서 쌀  
밥으로 하라는 指示가 없습니다.

H博士는 K會長에게 우리 太極旗에 春夏秋冬  
을 象徵하는 表示가 黑色으로 되어 있는데 靑色  
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或  
무슨 理由가 있는 것이겠지요? 太極旗의 乾, 離  
坎 坤을 말함인줄 안다. 아 저는 그 方面에 無識  
해서 無關心하게 지나왔는데 H博士는 모든 面  
에 觀察과 思考方式이 普通이 아니군요! 彼此  
한번 알아봅시다.

H博士는 中小都市, 農村만 보아도 家家戶戶  
TV안테나가 있는 것은 우리네 生活向上的 端  
面이겠지요! 저렇게 널려있는 안테나를 마을 한  
곳에 크게 세워 家家에 分岐하는 方法이 어떨까  
요? 物資도 節約되고 모양도 좋고 I博士도 좋  
은 着想이라 同意했다.

K會長은 H博士에게 새마을技術奉仕團의 任  
務와 實績을 說明하고 各道마다 우선 한마을을

完全히 科學化마을로 만들어 이웃 마을들이 와  
보고 따르게 하고 있는데…… 간단한 科學器材  
말하자면 尺(scale)도 없고, 溫濕度計도 없고 兩  
量計도 없는 마을이 있다. 새마을 工具함을 만  
들어, 톱, 전지, 가위, 흙손, 대패, 장도리 나  
사들리개, 휴즈, 못 등을 넣어두면 웬만한 일은  
마을사람 自身이 할 수 있기에 몇곳에 만들어  
준 일이 있다고 했다. H博士는 關心있게 듣  
더니 우리研究所(KIST)에서도 서울 근교에 例示하  
여 千戶橋 건너 京畿道 어떤 마을을 지정해 주  
면 姉妹結緣을 맺고 每週 한 計劃씩 시도해 보겠  
다고 하여 무척 호뭇했다.

大田을 지나, 龜尾工團도 지나 大邱에 到着하  
니 16時였다. 慶北大學 工大學長 L博士가 東大  
邱驛까지 나와 주었다. 東大邱驛을 大邱驛으로  
舊驛을 다른 名稱으로 하는것도 一考의 價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旅行中에는  
無責任하게 自由스런 對話가 오가는데 이것이  
가벼운 氣分の 旅談인지 모른다.

HOTEL문에 들어서니 無窮花 4個가 자랑하  
듯 좋은 觀光 Hotel이었다. 다만 air-con의 騒  
音이 缺함이었다. 騒音이 적은 방으로 옮겼다.  
Hotel側에 Advice해 주었다.

Micro-Wave system이 움직이는 慶北大學은  
電子工學의 特性化工大이다. 모든 裝備가 잘 되  
어 있다. 科總이 寄贈한 裝備도 잘 組立되어 教  
材로 쓰이고 있음을 보고 호뭇함을 느꼈다. 電  
子工學 新入生은 600名을 募集 했다고 한다. 우  
리나라 大學을 特性化한 Case를 보았다. 重化學  
工業育成 政策의 하나인 電子工業의 發展에 期  
待가 많음을 느꼈다.

New Town! 龜尾團地에 New Town을 計劃  
한다기에 立地를 돌아보고 또 한번 бет심을 주어  
보았다. 世界에서 示範이 될 말하자면 世界第一  
가는 New Town을 만든다는 計劃! 우리 一行  
은 100% 同感 同調했다. 早速히 實現되기를 期  
待한다.